

즈이코인

즈이코인(瑞光院)은 엔교지 절 내의 여섯 탑두(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) 가운데 하나입니다. 역사적으로 각각의 탑두는 보통 카리스마가 있는 주지와 특정 경전이나 부처에 초점을 맞춘, 개별적인 일련의 수행이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단가(檀家)(일정한 절에 속하여 시주를 하며 절의 재정을 돕는 집이나 사람)에 의해 보다 폭넓게 엔교지 절의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즈이코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원 문 가까이에 있는 편액에는 방문한 순례자들을 위한 숙방으로서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날 이 탑두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. 즈이코인의 소박한 흙 외벽과 가을의 선명한 단풍은 웨딩사진의 배경으로 안성맞춤입니다. 즈이코인의 바로 맞은편에는 대흑천이 모셔진 작은 신사가 있는데, 대흑천은 신불습합(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후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와 융합한 신앙 형태) 신앙에서 건강, 농민, 식(食), 그리고 행운의 신입니다. 가까이에는 히메지시에서 태어난 유명한 가인인 하쓰이 시즈에(1900~1976)가 지은, 일본의 전통 시가인 와카를 새긴 석비가 있습니다.